

해피밀 시즌 6-9호를 발간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을을 맞아 곡식이 익어가고, 각종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10월의 해피밀은 리딩지저스의 본문을 따라 소신지서를 자세히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중심에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 우리의 욕심과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해피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더라도 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10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which appears to read "Paul Jung".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
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
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야간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통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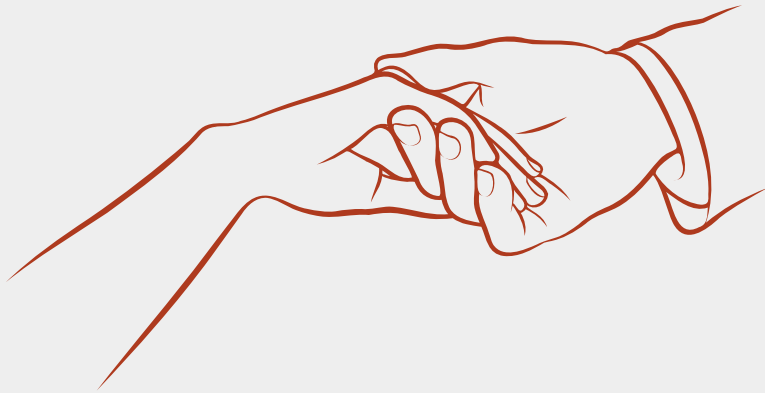
묵상질문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조선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조선지서 읽기



호세아 6-10장

밝히 드러난 마음(호세아 6:1-3)

얼마 전 어린이 집 선생님과 대화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딸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딸 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늘 친구들을 챙기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 권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증상이 첫째 아이들이 흔히 겪는 첫째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챙겨주는 것이 일상이 되다보니, 자신의 것은 챙기지 못하고 소모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이가 하원 길에서 늘 안아달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챙겨주다 왔으니 속으로 너무나도 지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언니답게 걸어"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너무 야박해보여 미안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딸 아이의 상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주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심판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용서와 회복, 고침과 나움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진심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용서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절 말씀의 권면처럼 계시되어 드러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넘어내지 못할 또한 신자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심은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기에 더하신 아버지의 징계였습니다(히 12:8). 이러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되어 알려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찢어짐과 치심으로부터 낫게 되고 싸매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 찢기시고 치임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세상에서 찢어지고 치임받아 소모되는 우리를 친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의 계시를 받지 않아도 우리의 찢긴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친히 치료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소모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안기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내가 힘써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2. 오늘 주님께 말하고 싶은 마음의 짐은 무엇인가요?





호세아 11-15장

공홀이 불붙듯(호세아 11:8-11)

정치인들 사이에서 미덕 중 하나는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전 상대방이 내뱉은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 그 말과 배척되는 행동을 할 때 이율배반적인 그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기억력은 독이 되곤 합니다. 얼마 전 딸아이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한 주 뒤에는 함께 캠핑을 가자고 말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갈 그 캠핑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에게 약속대로 캠핑장에 가자고 하니, 약속한 적 없다며 자기는 백화점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괜찮을텐데, 기억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억을 집어보십시오. 그 분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여, 출애굽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신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기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을 하나 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절정은 8절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과 배도를 다 기억하지만, 도무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를 보고 있노라면,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맹렬한 진노의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셔야 하지만,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노라면, 도무지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을 내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자신의 속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공홀로 불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진노의 불을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불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모든 진노의 잔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정치인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벌하기 위해 버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모든 진노를 자신에게 부으시는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묵상질문

1.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2.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엘 1-3장

충만한 삶(요엘 2:28)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뒤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며,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성령이 이제 부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 말씀은 바로 그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며 강렬한 소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옛날 모세가 말한 간절한 소원의 성취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 한 뒤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때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11: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모든 백성이 성령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취하여 살 때에, 성령에 충만하며 살 때의 거룩, 영광, 기쁨, 환희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성령에 취하여 살길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특별히 '만민'이라는 말을 묵상하며 설레야 합니다. 이 '만민' 속에 우리의 이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영광,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환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우리 이웃도 함께 느낄 수 있음에 설레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렘이 우리 속에 사라졌다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취해 살아가는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취해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은 단순히 음주만 뜻하는게 아닙니다.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칠 그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그 때에 이 영적인 삶이 다른 이에게도 주어지길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지칠 때 성령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웃은 누구인가요?





아모스 1-3장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한(암 3:1-2)

오늘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북 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와 전쟁승리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타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정의가 사라지 불의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했던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불의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참 배은망덕하게도 이제 약자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을 착취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온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만 달란트보다 더 무거운 죄책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탕감받았으니,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 또한 탕감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컴플레인을 걸고, 소송을 제기하고, 용서하기를 더디 하며 어떻게는 나의 이익을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더 큰 보응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과 다른 족속 사이의 중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다른 족속들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묵상질문

1.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2.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바꾸어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아모스 4-9장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암 5:24)

윗 물이 많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속담이 절로 떠오르게 합니다. 아모스서에는 수 많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모습의 시작은 항상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자, 우상숭배 속에 담긴 세계관이 백성들에게 들어옵니다. 그 세계관이 곧 그들의 문화로 자리잡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실패가 그들의 삶을 타락하게 합니다.

어제 우리는 제법 쓰디 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패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묵상 나눔을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조차 어제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 속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질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항상 나의 욕심에 이끌리어 나의 바램을 투영한 어떤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라는 것은 늘 세상 논리에 종속됩니다. 세속적 영향 속에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고, 그 욕망의 발현으로 우상 숭배가 일어나며, 그 우상 숭배는 곧 우리의 삶을 불의로 물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는 강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러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도무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의인이 계십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며, 정의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롬5:1-2]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의를 대신 이루어주신 이 사역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 은혜에 들어가고, 그 은혜의 놀라운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즉, 이제야 바른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바른 예배가 세워질 때, 그 제사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보이신 '은혜로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보다 더 바라며 의지하는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 실천할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요?





불순종의 이유(렘 1:4-1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입니다
찬송가를 통해 가사를 찾으시고, 오른쪽 QR코드로 반주 삼아주세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친 마음 어려운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옵소서. 또 지친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해주는 오늘의 가정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본문

[호6:1-3]

-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2026.10.3(토)

말씀나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겉으로만 보고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할 수 있고, 속상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마음을 말해 주어야 비로소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속상한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챙기느라 지쳤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예수님, 오늘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안아 주세요.” 우리 가족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날에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품에 마음껏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질문

1. 요즘 말하기 어려웠던 지친 마음이 있나요?
2. 마음이 지치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바다 1장

교만이란(욥 1:15-16)

오바다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선포이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로서 다툼과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뤄진 화해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걸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후손인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자리 잡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단순한 거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삶에서 완전히 배제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사사건건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며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만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아무리 높은 곳에 숨을지라도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정하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에돔을 향했던 심판의 시선을 만국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옵니다. 에돔의 죄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뿌리내린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교만은 인간을 수탈과 함정, 그리고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 안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단순히 남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세상적 정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온전히 믿고, 그 믿는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겸손을 실현해 가시는 복된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교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에 교만의 이야기가 많나요? 겸손의 이야기가 많나요?





요나 1-4장

하나님을 피하여(욥 1:1-3)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온 열방을 향한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태풍과 큰 물고기, 박넙쿨과 뜨거운 동풍과 같은 모든 피조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세상을 보존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와 능력을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선민사상과 교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선지자 요나를 통해 적국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가진 기존의 구원관으로는 원수인 앗수르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도무지 받아들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선지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구원해 내셨고, 마침내 니느웨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나아가 박넙쿨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 내가 평생 의지해 온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경험과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며, 생명이 있으나 죽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사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억울한 유죄 선언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온 세상의 기대를 뒤집어 십자가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성도의 삶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자만하지만, 내 생각과 틀이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마침내 성도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려놓고 참된 순종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복된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실 수 있나요?
2.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미가 1-4장

어떤 통치를 바라시나요?(미 4:1-5)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남유다는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샅을 위하여 고통받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미 3:11). 이러한 리더십의 부패는 곧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향한 수탈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은 발처럼 갈아엎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참되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와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미가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통치자 썩어짐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을 넘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적 죄성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치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조차 없음을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압제했으나, 여호와의 산에 세워질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율법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는 인간의 정치적 타협이나 힘의 균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미가서의 환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쥐어짜 자신의 유익을 구했으나, 참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야말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권의 완성입니다.

성도로서 참된 통치를 바라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우상과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구속받은 성도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들"(5절)입니다. 세상의 흔들리는 권력이나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취 새롭게 디자인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세상적 통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2. 우리가 바라고 꿈꾸어야 할 통치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통치 안에 있나요?





미가 5-7장

그의 근본은 상고에(미 5:1-5)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품없는 개천을 바라볼 때는 그곳에서 용과 같이 뛰어난 인물이 나오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예상과 상황, 형편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구약 선지자 미가가 바라본 베들레헴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불과했기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야가 나올 만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작고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서는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볼 때는 개천 중에 개천에서 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의 근본이 상고에, 곧 태초의 영원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신비로운 선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태어날 자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빛이시요, 하나님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라고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께서 가장 초라하고 낮은 개천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주님은 온 우주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만유의 주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인간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낮아짐과 겸손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궁궐이나 강대국의 권력 속에서 구원자가 등장하길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인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초라한 개천과 같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막막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삶이 개천과 같아서 낙담하고 계신가요?
2.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나훔 1-4장

참 공의(나 1:1-8)

구약의 나훔서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잔혹한 강대국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위로'라는 나훔 선지자의 이름 뜻처럼, 나훔서는 겉으로는 니느웨의 비참한 파멸만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세속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에게 전하는 참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오만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과 권능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무죄한 것으로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온 우주 앞에 명백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나훔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참으로 깊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세속의 물결과 불의한 현실 앞에 마음에 깊은 절망을 느끼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부조리함 앞에서 영혼의 깊은 탄식을 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낙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피조물로서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채 아파하며 방황하곤 합니다.

이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악을 결코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온전히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공의의 심판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 악한 사탄과 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대적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환난 날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전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오만함과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와 사랑이 마침내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산성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주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2. 내가 이해한 공의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무엇인가요?





고집을 내려놓는 가정(은 1:1-3)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315장)"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참된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본문

[은1:1-3]

- 1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나눔

가정 안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내 중심적인 고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나라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민족적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역시 가정 안에서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상 이것이 옳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라며 내 방식과 틀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정 안에서는 내 자아와 자존심이 왕 노릇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친 풍랑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깨어진 자아를 건져 올리셨고,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 한 영혼을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친히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스러운 틀을 깨뜨리심으로, 그를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요나의 표적을 완성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셨습니다. 역울한 수치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고통이지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 가정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 안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최근 가정 안에서 내 판단이나 경험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놓친 적은 없나요?
2.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생각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1-3장

의지의 찬양(합 3:16-18)

하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큰 압제와 어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여호야긴 왕조차도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당할 환상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구원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장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들을 당분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모든 환상에 대하여 하박국이 듣고 깨달은 이후에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16절). 이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무화와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멜로디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찬양을 최초로 부른 하박국은 그러한 기쁜 감정과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찬양이 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드리는 찬양이 있고, 의지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감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움에 대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찬양은 의지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창자가 흔들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찬양을 드리기 쉽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선을 행하실 때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찬양은 바로 의지의 찬양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요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2.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스바냐 1-3장

여호와와 날(습 2:1-3)

스바냐는 여호와와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날이 기쁨과 환희의 날이 아니라 환란과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이날 심판에 임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과 은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권력과 명예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는 효력을 발휘했을지언정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압박한 여호와와 날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그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함께 모여 공동체가 함께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서로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공동체 신앙생활이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편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 일으켜줄 동역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와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음을 겸손히 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목이 곧은 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 자신의 의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겸손할 때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으며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여호와와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날은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내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에서 함께 회개하는 것이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상질문

1.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2.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길 어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학개 1-2장

그분과 함께라면(학 2:3-5)

70년 포로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건축이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미리 건축재료를 다 준비했었기에 시작한 일이었으며 이를 건축하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전을 재건축한들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대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이 아무리 막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생수를 내사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여호와와 말이니라”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니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세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무상질문

1.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2. 문제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스가랴 1-5장

여호와께 돌아가자(스 1:2-4)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귀환으로 고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르시길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할 경우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혹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다 지치거나 낙심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방향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께 돌아온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난당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 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분을 원망하려는 죄악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상질문

1. 오늘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 보통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스가랴 6-10장

자기만족(속 7:4-6)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을 금식하고 애통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로귀환을 했으니 앞으로도 이 금식의 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그들이 금식을 계속하든지 않든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노력이니, 하나님이 이를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파고 들어가고 보면 결국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여서 더 큰 재앙을 막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포로귀환을 하였고 상황이 좋아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애통을 위해 더 노력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수많은 종교적 행위 가운데 얼마나 자기만족적인 것이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공로로 그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은혜로 보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쉽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금식을 하든지 않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은 바로 서로 인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했지만 자기만족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며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무상질문

1.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며 봉사의 자리에 임한 적이 있으십니까?
2.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합 3:16-18)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무화가 나뭇잎이 마르고"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본문

[합3:16-18]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나눔

큰 소리로 울동하면서 찬양할 때 기분이 어때요? 아주 신나고 기뻐요. 이처럼 우리는 찬양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즐거울 때일수록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힘들고 슬픈 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박국은 기쁘고 즐거운 감정에 의지하며 찬양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박국은 당장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슬프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계속 슬픔에 잠겨있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불러야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리길 소망해요.

나눔질문

1. 언제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나요?
2.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르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스가라 11-14장

왕권 회복(스 14:9~11)

오늘 본문은 스가라가 지금까지 강조한 성전 재건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전히 이방 나라의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말씀이,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12절부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유일하신 왕이 되실 것인데, 그 결과로 10절에 온 땅이 회복될 것이고, 11절에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 깃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결과이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과 싸워달라는 정도의 기도에서 벗어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악이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길 간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2. 나의 삶에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된다면, 변화되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1-2장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말 1:1-5)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들은 긴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마지막 경고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외면하였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6번의 논쟁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2장까지 3번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에 빗대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니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따져 묻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시며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책망과 경고를 하시며, 때로는 훈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행하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기 싫거나 불편해서 외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3-4장

두려움입니까? 소망입니까?(말 4:1-6)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마지막인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여전히 불의한 자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갔느냐'며 따져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중심'의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시며 돌이키기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만한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와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 송아지 같이 뛰놀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는 조금도 남지 않을 정도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선지자를 보내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교만과 악인들의 삶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소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보다 겸손함으로,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속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과 논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세상의 행동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의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마 1:21-23)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예수님의 계보를 가장 먼저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심을 입증합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의 동일한 단어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특히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이 말씀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은혜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 어떤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마태복음 4-6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마 4:23-25)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18~22) 직후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든 병든 자들까지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아 영원이라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복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요구합니다. 본문 25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무리들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며 떠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자비롭지 못하냐'라고 원망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나의 죄를 묻지 않고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2.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렵게 만드는 나의 욕심이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마 1:21-23)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우리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본문

[마태복음 1:21-23]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나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특별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특별하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맨 앞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야.

특별히 16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야. 또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소개하는거야.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왕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모습이야. 십자가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사형이라는 벌을 주는 도구였기 때문이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야.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거야. 그리고 부활하셨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져.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보다 큰 선물이 있을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실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나눔질문

1.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될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2.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다짐 해봅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